

7세기 고구려의 왕호 정비와 연개소문*

이규호**

-
1. 머리말
 2. 三 ‘大王’ 號의 원형과 변천
 3. 三 ‘陽王’ 號의 제정과 연개소문 정변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고구려 왕호에서 大王형 왕호로 분류되었던 세 명의 왕인 태조대왕, 차대왕, 신대왕호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들이 문헌 기록상에서 대왕으로서 남게 된 원인과 배경을 찾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대왕형 왕호의 성립이 연개소문의 정변과 보장왕의 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필요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고구려 왕호의 원초적인 형태는 諱형 왕호였고, 1~5대왕은 그러한 방식에 따라 왕호가 부여되고 전승되었다. 반면에 다수를 차지하는 왕호는 葬地名 왕호로서, 첫 장지명 왕호인 9대 고국천왕을 시작으로 광개토왕 이전까지 이어진다. 이른바 3대왕은 6~8대왕의 왕호로서 휘형 왕호와 장지명 왕호의 사이에 위치하면서도 왕호의 형태를 달리하는 독특한 위치를 지닌다.

그런데 왕호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장지의 전승이 불완전한 데 반해, 휘의 전승은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바라보면 3대왕은 본래 휘형 왕호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이들이 대내외적으로 뚜렷한 행적을 남긴 자들이라는 점에서 당시 고구려인들에게 분명한 기억을 가진 자들로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휘형 왕호가 전대의 왕호 부여 방식을 잇는다는 점에서도 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곧, 3대왕의 본래 왕호는 宮王, 遼城王, 伯固王이었으리라 이해하였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58261).

** 동국대학교 강사

다음으로 이들이 3대왕으로 바뀐 시점으로는 종래 『신집』 편찬 시를 주목했던 것과 달리 연개소문 정변 이후 정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3대왕이 재조명 되었다고 보았다. 3대왕의 관계와 행적이 보장왕의 아버지인 대양왕을 비롯하여 영양왕-영류왕(무양왕)과 매우 유사함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은 연개소문과 보장왕은 선대왕들과 그 형제에게 3양왕이라는 또 하나의 왕호군을 추송하면서 3대왕을 선례로 삼았고, 3대왕의 행보가 신대왕의 즉위와 명림답부의 국상 취임으로 귀결된 것처럼 3양왕의 행보가 보장왕의 즉위와 연개소문의 막리지 취임으로 귀결되도록 명분 만들기를 했다고 보았다.

키워드 : 고구려, 王號, 淵蓋蘇文, 寶藏王

1. 머리말

왕호는 왕의 생시 업적을 드러내는 방식 중의 하나로, 당대와 후대 사람들이 그 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칭호이다. 군주가 사망한 이후에 붙이는 諡號가 일반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지만, 삼국의 왕호는 전근대 동아시아 왕조에서 흔히 사용된 祖, 宗과는 다른 방법으로 왕호를 제정하였다. 애초에 신라의 이사금, 마립간처럼 군주이긴 하나 왕으로 불리지 않은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왕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한국 고대 삼국의 왕호 중에서도 고구려의 왕호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왕호의 종류가 여럿이고, 일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정리된 듯한 흔적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선학들은 고구려 왕호의 변화양상과 배경 등에 주목하여 살펴왔다.¹⁾

기록에 전하는 고구려의 왕호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고, 『삼국유사』 왕력편과 중국 정사 고구려전, 금석문의 왕호 관련 기록이 보완자료로서 활용된다. 『삼국사기』의 왕호는 本文의 본문왕호와 分註의 분주왕호로 분류되는데, 본문왕호에 붙은 ‘故國’ 과 분주왕호에 붙은 ‘國’ 을 통해 분주왕호가 본문왕호보다 선행한다고 파악하고 있다.²⁾ ‘國’ 은 수도를 지칭하므로 본문 왕호가 성립된 시점은 늦어도 국내성이 故國이라 불릴 수 있는 평양 천도 이후라고 할 수 있다.³⁾

한편 고구려의 왕호는 의미에 따라 크게 葬地名, 勳績, 諱, 大王, 기타 유형으로 구분하기

1) 高寬敏, 1996 ; 조인성, 1990 ; 이도학, 1992 ; 임기환, 2002 ; 김기홍, 2005 ; 최진열, 2012 ; 이승호, 2016 ; 강진원, 201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高寬敏, 1996, 115~124쪽 ; 임기환, 2002, 11쪽.

3) 본문 왕호의 성립 시점에 대해서는 『신집』 편찬 시에 정리되었을 보는 견해가 제기된 이래(高寬敏, 1996, 131~138쪽), 대세를 이루고 있다.

도 하는데, 29명의 고구려 왕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장지명 왕호이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한 것은 ‘대왕형 왕호’로서 태조대왕, 차대왕, 신대왕을 가리킨다. 고구려의 왕이 4세기 이후부터 太王(혹은 大王)을 칭했음은 현전하는 금석문을 통해 잘 알려진 바이지만, 이들은 4세기 이전의 왕이었을 뿐 아니라 본문왕호에 대왕이라고 특기된 사례이다. 따라서 본문왕호의 성립시점을 고려하면 대왕형 왕호는 그 이후 언젠가 모종의 이유로 붙여졌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⁴⁾.

대왕형 왕호의 부여 시점으로는 영양왕대의 『신집』 편찬 시기를 지목한다.⁵⁾ 그들이 漢이라는 통일 왕조를 극복한 업적을 지닌 왕들이었다는 점에서 隋와의 전쟁을 이겨낸 영양왕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집』이 편찬된 영양왕 11년은 수와 한 차례 전쟁을 벌인 이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전과가 불분명한 1차 전쟁 이후였다.⁶⁾ 국난 극복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면 그 이후의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국난을 극복한 왕에 대한 추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양왕과 영류왕호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왕호를 장지명, 훈적형, 휘호형 그 어느 것으로도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⁷⁾ 그런데 영류왕의 경우 최근 발견된 『고을덕 묘지명』에서 建武大王이라는 왕호를 확인할 수 있고,⁸⁾ 『삼국유사』에는 武陽王이라는 왕호도 전해지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⁹⁾ 이에 의하면 건무대왕은 휘호형 왕호에 해당할 것이고, 무양왕은 선왕이자 형인 嬰陽王, 그의 동생이자 보장왕 2년에 왕으로 추승된 大陽王¹⁰⁾과 함께 ‘陽’을 공통으로 하는 또 하나의 왕호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생시와 사후에 각각 별도의 왕호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뿐 아니라, 그것이 등장한 배경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영류왕은 시해당한 왕임에도 영양왕, 대양왕과 같은 형태의 왕호를 전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세 명이 형제이자 통일된 중원왕조 隋와의 전쟁을 극복한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은 세 명의 ‘大王’의 행적을 떠올리게 했을 법하다. 영양왕대 편찬된 『신집』을 통한 역사 정리와 영류왕의 행적을 무시할 수 없었던 당대의 사정도 고려된다. 더욱이 마지막 ‘陽’王인 대양왕이 연개소문의 정변으로 인하여 왕위에

4) 고구려에서 대왕호가 고국원왕대부터 사용되었음에 주목하여 그 무렵 대왕호를 부여했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79쪽).

5) 임기환, 2002, 38~39쪽 ; 반면에 재위 당시에 이미 대왕으로서 불릴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고 그것이 당대의 칭호였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김기홍, 2005, 227~232쪽).

6) “明年, 元率靺鞨之衆萬餘騎寇遼西, 營州總管韋冲擊走之. 高祖聞而大怒. 命漢王諒爲元帥, 總水陸討之, 下詔黜其爵位. 時饋運不繼, 六軍乏食. 師出臨渝關, 複遇疾疫, 王師不振. 及次遼水, 元亦惶懼, 遣使謝罪, 上表稱遼東冀土臣元雲雲. 上於是罷兵, 待之如初. 元亦歲遣朝貢.” (『수서』 권81, 고려전)

7) 임기환, 2002, 33쪽

8) “祖岑, 東部, 受建武太王中裏小兄, 執垺事” (『고을덕 묘지명』)

9) “又按高麗古記云…時武陽王聞其賢徵入爲臣. 自稱姓盖名金, 位至蘇文, 乃侍中職也.” (『삼국유사』 권3, 寶藏奉老 普德移庵)

10) “王諱臧, 以失國故無諡. 建武王弟大陽王之子也.” ; 동 2년. “二年, 春正月, 封父爲王.” (『삼국사기』 권 21, 보장왕 원년)

오른 보장왕의 아버지였다는 점에서, 정변 이후의 조치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고구려 왕호의 변천 과정 속에서 초기 3大王號의 변화상을 추적하여 본문왕호로 전해지는 대왕호가 언제 부여되었는지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 대왕호의 부여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을 검토하여,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3陽王號가 부여된 의미나 역사적 위상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三‘大王’號의 원형과 변천

머리말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본문왕호가 분주왕호보다 선행하며, 왕호는 그 의미에 따라 장지명, 휘호, 훈적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삼대왕호는 본문왕호이므로 평양 천도 이후에 성립되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그들 왕호의 원형은 분주왕호의 모습을 살핌으로서 알아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세 명의 대왕에 대한 당대 고구려인의 인식이 본래 어떤 것이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이후 세 왕들에게 이후 대왕호가 부여된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삼국사기』의 왕호 및 諱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왕호와 諱, 葬地名

代數	王號		諱		葬地名
	本文	分註	本文	分註	
1	東明聖王		朱蒙	鄒牟, 衆解	龍山
2	瑠璃明王		類利	孺留	豆谷 東原
3	大武神王	大解朱留王	無恤		大獸村(林)原
4	閔中王		解色朱		閔中原 石窟
5	慕本王		解愛	解愛婁	慕本原
6	大祖大王	國祖王	宮	於漱(小名)	
7	次大王		遂城		
8	新大王		伯固	伯句	故國谷
9	故國川王	國壤	南武	伊夷模	故國川原
10	山上王		延優	位宮	山上陵
11	東川王	東壤	優位居	郊畿(小名)	柴原
12	中川王	中壤	然弗		中川之原
13	西川王	西壤	藥盧	若友	西川之原
14	烽上王	雉葛	相夫	歆矢婁	烽山之原
15	美川王	好壤	乙弗	憂弗	美川之原
16	故國原王	國罌上王	斯由	劉	故國之原
17	小獸林王	小解朱留王	丘夫		

代數	王號		諱		葬地名
	本文	分註	本文	分註	
18	故國壤王		伊連	於只支	
19	廣開土王		談德		
20	長壽王		巨連	璉	
21	文咨明王	明治好王	羅雲		
22	安臧王		興安		
23	安原王		寶延		
24	陽原王	陽岡上好王	平成		
25	平原王	平岡上好王	陽成		
26	嬰陽王	平陽	元	大元	
27	榮留王		建武	成	
28	寶藏王		藏	寶藏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왕의 장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16대 고국원왕까지이다. 장지명 왕호는 고국천왕의 분주왕호가 國壤, 고국원왕의 분주왕호가 國罡上王으로 되어 있으면서 각각 故國川原과 故國之原으로 되어 있음에 평양 천도 이후 정리된 왕호임을 알 수 있다. 즉, 壤은 川으로 罡上은 原으로 바뀌게 된 것인데, 평양 천도 이후의 왕인 양원왕과 평원왕의 분주왕호에 여전히 罡上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후대에도 여전히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왕비』에는 1~3대왕호를 각각 鄒牟王, 孺留王, 大朱留王이라 하고 있다.¹¹⁾ 이는 당시까지도 휘호형 왕호를 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삼국사기』에서 대무신왕의 휘는 무홀이라 전하지만, 분주왕호에 포함된 解朱留가 4, 5대왕의 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주류왕도 휘호형 왕호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평양 천도 이전에는 휘호형 왕호와 장지명 왕호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4대왕인 민중왕과 5대왕인 모본왕은 분주왕호가 전해지지 않는다. 이들은 민중왕과 모본왕이라는 장지 관련 전승을 갖고 있는데,¹²⁾ ‘原’은 평양천도 이후 정리된 장지명 왕호에 보이는 표현이다. 따라서 민중왕과 모본왕의 장지 전승은 평양 천도 이후에 정리된 내용으로, 그 왕호 역시 그러한 전승에 기반하여 정리된 왕호일 것이다.¹³⁾ 그러면 정리 이전의 왕호는 무엇이었을까. 1~3대왕이 휘호형 왕호를 썼다는 점, 분주왕호가 휘호와 동일한 경우 분주왕호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면¹⁴⁾ 이들도 본래 휘호형으로 解色朱王, 解(愛)婁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¹⁵⁾ 이렇게 보면 고구려의 첫 다섯 왕은 휘호형

11)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顧命世子孺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紹承基業.” (『광개토왕비』)

12) “夏四月, 王田於閔中原. 秋七月, 又田, 見石窟, 顧謂左右曰, 吾死必葬於此. 不須更作陵墓.” (『삼국사기』 권14, 민중왕 4년); “六年, 冬十一月, 杜魯弒其君…遂葬於慕本原, 號爲慕本王.” (『삼국사기』 권4, 모본왕 6년)

13) 한편 민중왕과 모본왕의 왕계가 동천왕대 왕릉의 수묘와 종묘제사 정비 시에 함께 편입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임기환, 2016, 120~121쪽).

14) 高寬敏, 1996, 117쪽.

15) 임기환, 2002, 34쪽; 이승호, 2016, 153~154쪽.

왕호였던 것이 된다.

한편 장지명 왕호로서 가장 이른 왕은 고국천왕이다(國壤王). 그 이후 왕호는 표에 정리되어 있듯 광개토왕 이전까지 장지명 왕호로 이어진다. 이러한 흐름 속에 초기의 3대왕호는 휘호와 장지명 왕호 사이에 위치하면서도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는 사례이다. 그러한 까닭에 기존에는 이들을 대왕형 왕호로 구분한 다음 國祖王, 次王, 新王이라는 분주왕호를 가졌을 것이라 이해했다.¹⁶⁾ 그런데 장지가 전함에도 장지명으로 전해지지 않는 왕이 있으니, 바로 고국천왕의 아버지인 신대왕이다.

신대왕의 장지는 故國谷으로, 명칭으로 보아 장지 전승은 평양 천도 이후에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대왕 장지의 본래 명칭은 國谷이었을 것이고, 왕호는 그에 기반한 國谷王으로 불리다가 천도 이후 故國谷王으로 바뀌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¹⁷⁾ 하지만 그의 본문왕호는 장지명 왕호와 관련 없는 신대왕이며, 분주왕호도 전하지 않는다. 이는 애초에 장지명 전승이 있었음에도 장지명을 왕호로 삼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본래 별도의 왕호가 있었는데, 그것이 평양 천도 이후 언젠가 신대왕이라는 왕호로 정리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5대 왕호가 본래 휘호형이었다고 하면, 첫 장지명 왕호인 9대 고국천왕의 왕호 이전 장지가 전해지지 않는 왕들이 장지명 왕호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기왕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분주왕호와 휘호가 동일할 경우 분주왕호를 생략했다면, 추모왕대부터 전해져 온 휘호 왕호의 전통과 관련시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여나 백제, 신라가 휘호형 왕호를 썼던 점으로 비추어 보아 한국 고대의 국가들은 휘호형 왕호가 원초적인 형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 역시 건국 초의 왕들이 그와 같다는 점에서 휘호형 왕호가 본래의 왕호 제정방식이었을 것이다. 장지가 전해지지 않는 태조대왕과 차대왕도 궁과 수성이라는 휘는 전하고 있으므로, 장지명 왕호의 등장 이전에는 휘를 사용하여 왕호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장지명이 전함에도 왕호로 쓰지 않았던 신대왕 백고를 더하면 이 셋의 본래 왕호는 휘호형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3대왕의 본래 왕호는 宮王, 遂城王, 伯固王이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은 漢 군현과의 투쟁을 주도한 왕들로서 당대 고구려인들에게 기억된 인물들이었다¹⁸⁾. 그러므로 次王, 新王과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왕호를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¹⁹⁾

16) 임기환, 2002, 13~14쪽.

17) 신대왕의 장지 故國谷는 본래 국조왕의 장지였으며, 차대왕 수성과 신대왕 백고의 장지 전승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武田幸男, 1989, 298~299쪽).

18) 수성과 백고의 이름이 『후한서』의 그것과 동일한 것을 토대로 본래 망실되었다가 『후한서』의 기록에 따라 후대에 보완해 넣었다고 보기도 한다(노태돈, 1999, 79~80쪽). 그러나 당시 후한과 고구려의 관계나 그들의 행적을 고려하면 거꾸로 고구려로부터 그들의 이름이 후한에 들어가 기록에 남은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 태조대왕의 분주왕호인 國祖王이 왕실의 혈연의식을 드러낸 왕호였을 것이라는 지적이나(조인성, 1990, 66~69쪽), 그의 어렸을 적 이름이 전하고 있음은 태조대왕 宮에 대한 당대 고구려인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수성 또한 즉위 전부터 대외전쟁을 이끈 인물로서 영웅적인 王者觀에 부합하는 인물로서 기억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럼에도 세 명의 대왕 가운데 신대왕은 독특한 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고구려 왕계에 서 신대왕이 지닌 역사적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1. [신대왕] 2년(166) 봄 정월, 수을 내려 말하기를…國인이 사면령을 듣고 환호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손뼉을 치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크고 넓구나 새로운 대왕의 덕택이여” 라고 하였다…[명림]답부를 國相으로 삼고 爵을 더하여 沛者로 삼아, 내외의 병마를 관장하게 하고 梁貊의 부락을 겸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左右輔를 고쳐 국상으로 삼은 것은 이것이 시초이다.²⁰⁾

가-2. [신대왕] 3년(167) 가을 7월, 왕이 졸본에 행차하여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

위의 사료에서 나와 있듯 신대왕대에는 새로운 정치적인 행보가 확인된다. 기존의 左右輔를 개편하여 國相을 두었다든지, 처음으로 시조묘 제사를 시행한 기록 등은 이 무렵 고구려 정계 내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앞서 살핀 신대왕의 장지 故國谷에 주목하여, 신대왕대부터 집안으로의 천도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²¹⁾ 또한 현전하는 신대왕 이후의 왕계는 그의 후손들로서, 멸망시까지 왕계의 변동 없이 이어지고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신대왕의 즉위와 그의 치세는 당시 고구려인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가-1에는 신대왕의 사면령에 대하여 당시 國人들은 ‘新大王의 덕택’ 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국민들이 칭찬 대왕을 신대왕의 생시 칭호라 보기도 하지만,²²⁾ 이는 차대왕의 폭정을 뒤집고 즉위한 신대왕에 대한 당대인들의 칭송으로서 ‘새로운 대왕’ 이라는 의미를 지닌 일반적 표현이라 생각된다. 어찌되었든 당시 고구려인들은 신대왕을 대왕이라고 부를 만큼 각별한 기억을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보인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태조대왕의 분주왕호인 국조왕은 언제 형성되었는가를 확인해보자. 국조왕이라는 명칭은 그가 오래 살았다는 기록이 있기에 ‘나라의 할아버지왕’ 이라는 의미로 붙여졌다고 보기도 한다.²³⁾ 그러나 태조대왕을 비롯한 3대왕의 수명이 비정상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관련하여 동천왕의 휘인 位宮이 주목되는데, 그의 휘는 선조인 宮을 닮아서 붙인 것이라 하였다.²⁴⁾ 당시 고구려인들에게 궁은 범상치 않은 행적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기억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동천왕대에 종묘를 정비하고 국

20) “二年, 春正月, 下令曰…國人既聞赦令, 無不歡呼, 慶曰, 大哉, 新大王之德澤也…拜答夫爲國相, 加爵爲沛者, 令知内外兵馬, 兼領梁貊部落. 改左·右輔爲國相, 始於此.” (『삼국사기』 권16, 신대왕 2년)

21) 임기환, 2015, 27쪽 ; 기경량, 2017, 89-90쪽.

22) 김기홍, 2005, 227-232쪽.

23) 김기홍, 2005, 225-226쪽.

24) “伊夷模無子, 淫灌奴部, 生子名位宮. 伊夷模死, 立以爲王, 今句麗王宮是也. 其曾祖名宮, 生能開目視, 其國人惡之, 及長大, 果凶虐, 數寇鈔, 國見殘破. 今王生墮地, 亦能開目視人. 句麗呼相似爲位, 似其祖, 故名之爲位宮. 位宮有力勇, 便鞍馬, 善獵射.” (『삼국지』 권30, 고구려)

조왕이라는 새로운 왕호를 올림으로서 왕실의 계승성과 권위를 재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3대왕을 휘호형 왕호로서 정리할 수 있다면, 언제쯤 우리가 보고 있는 大王의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일까 궁금해진다. 주지하듯 4-5세기 고구려 금석문들에 의하면 당대에 대왕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은 고국원왕 무렵부터이다. 본문왕호가 평양천도 이후의 산물이라고 하면 그 이전의 왕들에게 일괄적으로 대왕이라는 표현을 쓸 법하지만, 광개토왕비에 부각된 1~3대왕에게조차 대왕을 붙이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3대왕에게 대왕이라는 왕호가 부여되는 것은 그보다도 이후에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에는 7세기 영양왕대를 주목해왔는데, 다음 장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시점과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三‘陽王’號의 제정과 연개소문 정변

지금까지는 3대왕에게 대왕의 칭호를 붙인 시기로 『신집』 편찬 시기를 지목해왔다. 당시 이들에게 대왕호를 붙이게 된 배경으로는 고구려와 隋가 한 차례 전쟁을 치룬 뒤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즉, 당시 고구려는 오랜 분열을 끝내고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와의 전쟁을 경험한 상태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난 극복의 이미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전 시기 한나라와의 전쟁을 주도했던 3대왕에 주목했다는 것이다.²⁵⁾

영양왕 재위기 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3대왕의 이미지가 필요했다는 설명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다만 현전하는 3대왕의 행적이 영양왕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면, 당시에 3대왕을 모두 대왕으로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태조대왕의 뒤를 이은 차대왕은 선왕인 태조대왕으로부터 정상적인 왕위계승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²⁶⁾ 차대왕 역시 명림답부에게 살해당하는 등,²⁷⁾ 왕위계승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양왕 재위기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을 이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王弟인 建武(영류왕)는 평양성 전투에서 활약하고 있다.²⁸⁾ 『신집』 보다 후대의 일기기는 하지만, 이는 당시 고구려군 내에서 王弟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집』 편찬 당시 이전의 역사들이 정리되면서 알게되었을 3대왕의 행적을 고려할 때, 건무의 모습은 漢과의 전쟁을 주도한 수성의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높았다고 생각된다. 영양왕 입장에서는 3대왕 모두를 추앙함으로써 드러나게될 수성의 행적이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마

25) 임기환, 2002, 38~39쪽.

26) 『삼국사기』 권15, 태조대왕 80년조에는 수성의 측근들이 수성에게 왕위 찬탈을 건의하는 장면이 있고, 94년조에는 결국 수성이 왕위찬탈을 마음먹은 장면이 전한다.

27) 『삼국사기』 권15, 차대왕 20년.

28) “遼東之役，護兒率樓船，指滄海，入自溟水，去平壤六十里，與高麗相遇，進擊，大破之，乘勝直造城下，破其郭郭。於是縱軍大掠，稍失部伍，高元弟建武募敢死士五百人邀擊之。”(『수서』 권64, 來護兒傳)

침 고구려는 6세기 중반 왕위계승 분쟁을 크게 겪은 바 있기 때문에²⁹⁾ 『신집』 편찬 과정에서 다시금 그러한 분쟁을 상기하는 일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한편 당시 수와의 전쟁을 주도했던 영양왕과 영류왕(건무)의 왕호에 대해서도 異論이 있었다. 하나는 嬰陽王, 『삼국유사』에 보이는 영류왕의 이칭인 武陽王, 그리고 보장왕의 아버지인 大陽王이 형제관계이면서 ‘陽’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왕호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휘호형 왕호로 구분한 것이다.³⁰⁾ 그러나 대양왕을 제외하면 두 왕의 휘가 별도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휘호형이라 보기 어렵다. 사실 이들을 휘호형으로 구분한 것도 휘를 알 수 없는 대양왕을 같은 유형의 왕호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서 제기된 것에 가깝다.

둘째는 장지명 왕호로 보는 견해이다.³¹⁾ 이에 따르면 陽에는 강의 북쪽을 가리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陽王은 강 북쪽에 문헌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고, 대동강 북안의 강서 3묘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같은 입지 조건이라도 강서 3묘보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매장된 왕들의 능을 구분하여 불렀던 집안 시기의 경험에 있다. 그에 비하면 강서 3묘는 같은 곳이나 다름 없는데, 여기에 각각 표현을 달리하는 장지명 왕호를 붙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듯 하다.

그런데 영양왕, 영류왕에게는 현전하는 왕호 이외에 다른 왕호가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1. [추고천황] 13년(605) 여름 4월 辛酉朔에 天皇이 皇太子, 大臣 및 諸王, 諸臣에게 조서를 내려 함께 발원문을 내라 함으로써 처음으로 구리와 비단으로 장육불상 각 1구를 만들라 하였다. 이에 鞍作鳥에게 명하여 불상을 만드는 공인으로 삼았다. 이 때, 高麗國 大興王이 聞日本國 天皇이 불상을 만든다는 것을 듣고 황금 3백냥을 보냈다.³²⁾

나-2. [보장왕 원년(642)] 왕의 휘는 臧인데, 나라를 잃은 까닭에 시호가 없다. 建武王의 동생 大陽王의 아들이다. 건무왕 재위 25년제에 蓋蘇文이 그를 죽이고 臧을 세워 왕위를 잇게 하였다.³³⁾

나-3. 조부 峇은 東部 (소속으로) 建武太王에게 中裏小兒을 받아 殉事를 맡았다.³⁴⁾

나-1은 605년 일본에서 장육불상을 만들자 고려국의 대흥왕이 황금 3백냥을 보내왔다는 기사이다. 여기에 보이는 고려국 대흥왕은 영양왕을 가리키며, 605년은 영양왕 16년에 해당

29) 『일본서기』 권19, 흠명천황 6년 및 7년조에는 잘 알려진 羸群과 細群의 왕위계승분쟁을 전하고 있다.
 30) 高寬敏, 1996, 133쪽. 김기홍은 영양왕의 분주왕호인 平陽, 武陽, 大陽이 휘라고 보았다(김기홍, 2005, 211쪽의 주4).
 31) 강진원, 2017.
 32) “十三年夏四月辛酉朔, 天皇詔皇太子大臣及諸王諸臣, 共同發誓願, 以始造銅繡丈六佛像, 各一軀. 乃命鞍作鳥, 爲造佛之工. 是時, 高麗國大興王, 聞日本國天皇造佛像, 貢上黃金三百兩.” (『일본서기』 권22, 推古天皇 13년)
 33) “王諱臧, 以失國故無諡. 建武王弟大陽王之子也. 建武王在位第二十五年, 蓋蘇文弑之, 立臧繼位.” (『삼국사기』 권21, 보장왕 원년)
 34) 주7)과 동일.

한다. 이로 보아 당시 고구려 영양왕은 대외적으로 대흥왕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대흥왕이라는 왕호는 어떤 유형으로 볼 수 있을까. 『삼국사기』에는 영양왕의 휘를 元 또는 大元이라 하였다. 언뜻 보기에는 대흥왕이 영양왕의 휘인 대원을 와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나, 元과 興은 의미상 통하는 점을 찾기 어려워 같은 뜻으로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현전하지 않는 영양왕의 다른 휘가 大興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대흥은 결국 ‘크게 흥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흔적을 나타내는 왕호로도 분류해 볼 만 하다.

나-2와 3은 영류왕의 이칭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기록들이다. 이들 기록에서는 영류왕을 건무(태)왕이라 하여 영류왕의 휘인 건무를 사용한 휘호형 왕호로서 부르고 있다. 특히나 나-3은 영류왕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를 살았던 고구려인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이에 의하면 영류왕은 고구려인들에게 건무왕이라는 휘호형 왕호로서 불렸던 셈이 된다.

즉, 영양왕에게는 대흥왕이라는 흔적형 왕호가 사용된 흔적이 있고, 영류왕에게는 건무왕이라는 휘호형 왕호가 사용된 흔적이 있는 셈이다. 먼저 7세기 당시 휘호형 왕호로서 왕을 부르던 모습은 이전 시기 왕호들에서 휘호형 왕호가 있었던 것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특히 흔적이나 장지명 왕호는 해당 왕이 사망하고 난 이후 부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휘호형은 왕의 생시에 부르던 방식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³⁵⁾

만약 대흥왕을 흔적형 왕호로 본다면 생시에 흔적형 왕호가 쓰인 증거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 시기 왕호에서도 생시에 흔적형 왕호를 쓴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다. 『양서』 고구려전에는 고구려왕 안이 등장하는데,³⁶⁾ 이 때의 고구려왕은 광개토왕을 가리킨다. 마침 광개토왕비에 기록된 그의 정식 왕호는 國罽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으로, ‘장지명+흔적+미칭왕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平安은 廣開土境과 함께 흔적에 해당한다. 또한 충주고구려비에는 고려태왕인 祖王이 나오는데,³⁷⁾ 이 때의 고려태왕은 장수왕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다수이다. 그렇다면 祖王은 장수왕의 흔적으로 여겨지는 長壽의 다른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당시 고구려에서는 왕의 생시에 휘호형 뿐만 아니라 흔적형으로도 부르는 관습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흔적형 왕호의 등장이 4세기 후반 광개토왕부터 시작되었고, 흔적이라는 것도 그 왕을 그렇게 부를 만한 특별한 업적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왕에게 생시부터 불렸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영양왕의 경우 대흥

35) 임기환, 2002, 32쪽 ; 일반적으로 왕의 諱는 避諱를 생각하여 어려운 글자를 쓰기 마련인데, 고구려왕들의 휘는 피휘를 고려하고 지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쉬운 글자들을 사용하였다. 이는 한자로 음차하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음차를 위해 쓴 글자이기 때문에 피휘에 구애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36) “垂死, 子寶立. 以句驪王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양서』 권54, 고구려)

37) “五月中, 高麗大王祖王…” (『충주고구려비』)

왕이라 불린 16년 당시는 이미 1차 對隋전쟁을 막아내고, 『신집』을 편찬하는 등의 대내외적 업적을 쌓은 이후이기 때문에 훈적형 왕호로 불릴 정당성을 확보했으리라 본다.

휘호형 왕호의 역사성이나, 사료로서 가장 당대성을 강하게 띠는 『고을덕 묘지명』의 표현을 고려하면 생시에는 왕을 휘호형으로 부르는 것이 보편적이었을 것이다. 광개토왕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 고구려 왕호의 정식 구성은 ‘장지명+훈적+미칭왕호’였고, 문헌기록에는 이 중 일부만이 남아 있다. 현재 훈적형 왕호로 분류되는 왕들의 행적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사후에 추증되는 방식으로 부가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건무왕의 본문왕호인 영류왕이라는 왕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榮留’라는 의미 자체는 ‘영화가 머무르다’ 정도로 해석되므로, 영류왕은 훈적형 왕호로 분류할 수 있다. 영류왕은 즉위 이전부터 큰 戰功을 쌓았고, 죽음의 원인이 된 연개소문의 정변을 제외하면 정치적으로 失政을 한 흔적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훈적으로서 칭송받을 만한 자격은 갖추고 있었다고 짐작된다.

그럼에도 그간 영류왕호가 훈적형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연개소문에 의해 시해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구려사 전체를 놓고 보면 영류왕 이전에 시해된 왕이 그를 이유로 왕호의 격하가 이루어진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고구려의 왕으로서 시해된 것이 분명한 왕은 모본왕, 차대왕, 봉상왕 셋인데, 이들에게 시해당했다고 하여 왕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나쁜 의미를 지닌 왕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어쨌든 이들도 고구려 왕계를 계승한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영류왕이라는 왕호는 어찌되었든 훈적형 왕호로 분류될 만하며, 영류왕 재위 당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영양왕과 영류왕의 휘호형 왕호는 大元王, 建武王을 썼고, 훈적형 왕호는 大興王, 榮留王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양왕과 무양왕은 언제 붙여진 것일까? 이는 역시 명칭상으로 유사한 왕호인 大陽王과의 관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왕위에 오르게 된 보장왕은 자신의 아버지를 대양왕으로 올리면서도, 시해된 영류왕 역시도 같은 계통의 왕호에 포함시킨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선왕을 시해한 연개소문의 정변과 그 이득을 본 보장왕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고구려사에서 前王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르는 경우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다-1. [모본왕] 6년(53) 겨울 11월, 杜魯가 그 군주를 시해하였다. 두로는 慕本人으로 왕을 좌우에서 모셨는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울었다. 누군가 말하기를 “대장부가 어찌 우는가?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를 어루만지면 임금이요, 나를 학대하면 원수라고 하였다. 지금 왕의 학정을 행함으로서 사람을 죽이니 백성의 원수이다. 너는 그를 도모하라.”고 하였다. 두로가 칼을 숨기고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이 그를 끌어다 앉혔다. 이에 칼을 뽑아 그를 해쳤다. 마침내 慕本原에 장사지내니, 호를 慕本王이라 하였다.³⁸⁾

다-2. [차대왕 20년(165)] 겨울 10월, 椽那 皂衣 明臨荅夫가 백성이 건디지 못함을 이유로 왕

을 시해하니, 시호를 次大王이라 하였다.³⁹⁾

다-3. [봉상왕 9년(300)] 8월, 왕이 국내의 남녀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궁실을 수리하게 하였다. 백성들이 음식이 부족하여 껍이 곤란해져, 이로 인해 流亡하였다. 창조리가 간하여 말하기를…[창]조리는 왕이 고치지 않을 것을 알고, 또 해가 미칠까 두려워 [관직에서] 물러나서 군신과 함께 모의하여 그를 폐하고 乙弗을 맞이하여 왕으로 삼았다.⁴⁰⁾

다-4. [영류왕 25년(642)] 겨울 10월에 개소문이 왕을 시해하였다.⁴¹⁾

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에서 정변을 일으키는 경우, 대부분은 그에 대한 명분이 존재한다. 고구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왕위를 둘러싼 정변들에서 그 명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라-1-3은 이를 잘 보여준다. 모본왕은 포악한 성격으로 인해 두로에게 시해당했고, 차대왕은 백성이 견디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립답부에게 시해당했으며, 봉상왕은 무리한 役事를 일으켜 백성을 곤궁하게 한다는 이유로 창조리에게 폐위당했다. 물론 이런 사례들은 정변을 성공시킨 자들이 제시한 명분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얼마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변에 있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명분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에 반해 영류왕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그를 시해한 연개소문이 영류왕의 폐위를 도모함에 있어 별다른 명분을 확인할 수가 없다. 오히려 연개소문의 성격이 흉악하고 무도하였으므로 여러 대인이 왕과 의논하여 연개소문을 제거하려고 했음을 볼 때,⁴²⁾ 제거의 명분은 연개소문이 아니라 영류왕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연개소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당시 고구려 내부의 정치투쟁에 의한 결과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연개소문의 경우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왕을 옹립하고 권력을 잡았지만, 왕을 시해하는 과정에서 그에 합당한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⁴³⁾ 이럴 때 권력을 잡은 세력은 왕을 교체해야 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을 것으

38) “六年，冬十一月，杜魯弑其君。杜魯 慕本人，侍王左右，慮其見殺乃哭。或曰，大丈夫何哭爲。古人曰，撫我則后，虐我則讎。今王行虐以殺人，百姓之讎也。爾其圖之。杜魯藏刀以進王前，王引而坐。於是拔力害之。遂葬於慕本原，號爲慕本王。”(『증주고구려비』)

39) “冬十月，椽那皂衣明臨答夫，因民不忍，弑王，號爲次大王。”(『삼국사기』 권15, 차대왕 20년)

40) “王發國內男女年十五已上，修理宮室。民乏於食，困於役，因之以流亡，倉助利諫曰，…助利知王之不悛，且畏及害，退與羣臣同謀廢之，迎乙弗爲王。”(『삼국사기』 권17, 봉상왕 9년)

41) “冬十月，蓋蘇文弑王。”(『삼국사기』 권20, 영류왕 25년)

42) “其父東部大人對廬死，蓋蘇文當嗣，而國人以性忍暴，惡之不得立。蘇文頓首謝衆，請攝職，如有不可，雖廢無悔。衆哀之，遂許嗣位。而凶殘不道。諸大人與王密議欲誅，事洩，蘇文悉集部兵，若將校閱者，并盛陳酒饌於城南，召諸大臣共臨視。賓至，盡殺之，凡百餘人。馳入宮弑王，斷爲數段，弃之溝中。”(『삼국사기』 권49, 蓋蘇文傳)

43) 『삼국사기』 권21, 보장왕 4년조에는 연개소문의 정변 이후 그에게 굴복하지 않은 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帝之克白巖也，謂李世勳曰，吾聞安市城險而兵精，其城主材勇，莫離支之乱，城守不服，莫離支擊之，不能下，因而與之)。 이러한 자들의 존재는 연개소문과 보장왕으로 하여금 정변의 정당성을 시급히 확보해야 할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로 생각된다. 정변 전후 고구려와 唐의 외교관계 변화를 살펴보면, 보장왕과 연개소문은 정권을 잡은 후 영류왕의 정치적 행보를 문제삼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들 입장에서는 영양왕대부터 이어온 자주적 기조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명분을 만들어 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前代의 통일왕조였던 漢과의 투쟁을 이끈 宮王, 遂城王, 伯固王을 재조명하게 되었을 것이다.

당시 연개소문과 보장왕 정권이 이들 세 왕에 주목한 것은 단순히 통일된 중원왕조와의 투쟁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 셋의 관계와 행적, 왕위계승 과정이 영양왕부터 대양왕까지의 그것과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알기 쉽게 그들의 행적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3대왕과 3양왕의 행적 비교

태조대왕	漢과의 전쟁	영양왕	隋와의 전쟁
차대왕	즉위 전 전쟁수행	무양왕(영류왕)	즉위 전 전쟁수행
	다른 정치세력과 결합		국정운영방향의 전환
	포로 교환 시도		봉역도 헌상, 태자 숙위
신대왕	연나 명림답부에 의한 추대 (연나부의 왕비와 권력독점)	대양왕 (보장왕 계승)	연개소문에 의한 추대 (연씨의 권력독점과 왕실혼인)

대외적인 활동상에서 전기의 3大王은 漢과의 관계를 두고, 후기의 3陽王은 隋唐과의 관계를 두고 변화를 보인다. 태조대왕-차대왕-신대왕의 치세가 대체적인 흐름 속에서 漢에 대한 강경-유화-강경의 흐름으로 이어졌다면, 영양왕-영류왕-보장왕의 치세도 隋唐과의 관계가 강경-유화-강경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화적인 자세를 취했던 차대왕과 영류왕이 즉위 이전에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공적을 쌓은 인물들이었다는 점까지 동일하다.

대내적으로도 이들의 관계는 유사한 면이 찾아진다. 3대왕은 同母 형제는 아닐지라도 형제 관계로서 기록에 남아있고, 3양왕 역시 영류왕이 영양왕의 이복동생이라는 점에서 同母 형제가 아니다. 또한 차대왕과 영류왕은 신대왕, 보장왕과 지지하는 세력을 달리했는데, 차대왕대에는 비류, 관나, 환나가 득세했다가 연나 출신에 의해 제거 당했고, 영류왕대에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大臣들과 연개소문 일파의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것이 발단이 되어 연개소문에 의해 제거당했다.

또한 정변을 일으켜 왕을 시해하고 새로운 왕을 세운 세력이 왕과의 혈연적 관계를 맺어 간다는 사실도 가벼이 넘길 수 없다. 명림답부가 속했던 연나부가 신대왕대를 시작으로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맺었음은 사료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연개소문 가문 역시 안승의 출자와 관련하여 보장왕의 외손이자 연정토의 아들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통일 중원왕조에 대해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선대 3왕의 행적에 더해, 내부적

인 정변의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연개소문과 보장왕은 3대왕 사이의 관계, 그들의 왕위 계승 과정에 주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3대왕의 행적이 그러했는데 찾아보니 우연히 3양왕의 행적과 유사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3대왕의 행적을 3양왕에 맞도록 개편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적극적인 근거가 있지 않는 한은 전자 쪽이 기록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 등은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삼아, 자신들을 신대왕과 명립답부의 역사적 위치와 등치시킴으로서 대당관계를 비롯한 정권을 주도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영류왕을 차대왕과 등치시킴으로서 정변의 정당성을 찾는 한편, 그의 생전 업적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대파를 무마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에 그때까지 휘호형 왕호로 전해오던 3대왕의 왕호를 현전하는 형태로 바꾸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왕호를 올림으로서 세 왕의 훈적을 높이면서도 ‘다음 대왕(次大王)’ 과는 다른 ‘새로운 대왕(新大王)’ 의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미를 담음으로서 왕호의 정리를 시도했다고 추정된다. 그 다음 보장왕은 연개소문과 함께 재위 2년에 자신의 아버지를 대양왕으로 삼으면서 이전의 두 왕에게도 陽王의 호를 올림으로서 3대왕의 선례에 비춘 3양왕의 칭호를 성립시켰을 것이다. 수성왕을 차대왕으로, 백고왕을 신대왕으로 바꿈으로서 영양왕 다음 왕의 실정을 새로운 왕이 유능한 신하와 함께 바로잡는다는 구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4. 맺음말

본고는 고구려 왕호에서 大王형 왕호로 분류되었던 세 명의 왕인 태조대왕, 차대왕, 신대왕호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들이 문헌 기록상에서 대왕으로서 남게 된 원인과 배경을 찾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대왕형 왕호의 성립이 연개소문의 정변과 보장왕의 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의 필요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문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고구려 왕호의 원초적인 형태는 諱형 왕호였고, 1~5대왕은 그러한 방식에 따라 왕호가 부여되고 전승되었다. 반면에 다수를 차지하는 왕호는 葬地名 왕호로서, 첫 장지명 왕호인 9대 고국천왕을 시작으로 광개토왕 이전까지 이어진다. 이른바 3대왕은 6~8대왕의 왕호로서 휘형 왕호와 장지명 왕호의 사이에 위치하면서도 왕호의 형태를 달리하는 독특한 위치를 지닌다.

그런데 왕호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장지의 전승이 불완전한 데 반해, 휘의 전승은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바라보면 3대왕은 본래 휘형 왕호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이들이 대내외적으로 뚜렷한 행적을 남긴 자들이라는 점에서 당시 고구려인들에게 분

명한 기억을 가진 자들로서 인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휘형 왕호가 전대의 왕호 부여 방식을 잇는다는 점에서도 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곧, 3대왕의 본래 왕호는 宮王, 遂城王, 伯固王이었으리라 이해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이 3대왕으로 바뀐 시점으로는 종래 『신집』 편찬 시를 주목했던 것과 달리 연개소문 정변 이후 정권의 정당성을 찾기 위한 목적에서 3대왕이 재조명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3대왕의 관계와 행적이 보장왕의 아버지인 대양왕을 비롯하여 영양왕-영류왕(무양왕)과 매우 유사함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개소문과 보장왕은 선대왕들과 그 형제에게 3양왕이라는 또 하나의 왕호군을 추송하면서 3대왕을 선례로 삼았고, 3대왕의 행보가 신대왕의 즉위와 명림답부의 국상 취임으로 귀결된 것처럼 3양왕의 행보가 보장왕의 즉위와 연개소문의 막리지 취임으로 귀결되도록 명분 만들기를 했다고 파악하였다.

[투고일: 2024.05.15, 심사개시일: 2024.06.03, 게재확정일: 2024.06.10.]

【참고문헌】

『광개토왕비』
『충주고구려비』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삼국지』

- 강진원, 2017, 「고구려 평양도읍기 왕호의 변화와 배경」, 『고구려발해연구』59
기경량, 2017, 『고구려 왕도 연구』
김기홍, 2005, 「고구려 국가형성기의 왕계」, 『고구려의 국가형성』, 고구려연구재단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이도학, 1992, 「高句麗 初期 王系の 復元을 위한 檢討」, 『韓國學論集』20
이승호, 2016, 「高句麗 王室의 世系 인식 추이와 宗廟의 변천」, 『인문과학연구』22
임기환, 2002, 「고구려 王號의 변천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28
임기환, 2015, 「고구려 國內都城의 형성과 공간 구성」, 『한국사학보』59
임기환, 2016, 「고구려 王系の 성립과정과 시기」, 『한국고대사연구』83
조인성, 1990, 「4·5세기 고구려 왕실의 世系 인식 變化」, 『한국고대사연구』4
최진열, 2012, 「고구려 광개토대왕 전후 왕호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67
- 高寬敏, 1996, 「高句麗本紀의 國內原典」, 『《三國史記》의 原典的研究』, 雄山閣出版株式會社
武田幸男, 1989,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Abstract】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Three Kings of Goguryeo in the mid-7th century and Yeongae Somun

Lee, Gyuho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ek for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ree kings who were classified in to the name of kingship for Daewang (Great King) from Goguryeo, namely, Great King Taejo, Great King Cha and Great King Shin and search for the cause and background for them to leave as the great king within the bibliographic record. As a result, it is affirmable that the establishment of great king-type name of king is attributable to the need of securing the justification on the political upheaval of Yeongae Somun and inauguration of Bojang-wang (Bojang-kking). The contents confirmed from the main contex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rimitive type of Goguryeo name of king was Hwi-type name of king, and the 1th~5th great king had their name of king granted and succeeded following such a method. On the other hand, the majority of the name of king is the jangji (tomb site) name of king that it started out from the first jangji name of king of the 9th Gogukcheon-wang to the time prior to Gwanggato-wang. The so-called 3 great kings have unique position to have different type of name of king as it is positioned between the Hwi-type name of king and jangji name of king as the name of king of the 6th ~ 8th great king.

However, while the succession of the jangji that is the basis to determine the name of king is incomplete, and looking in light of the point that the succession of the Hwi-type is far more in details, the 3 great kings are shown to have a high possibility as the Hwi-type name of king from the beginning. In particular, from the stand point that they were the ones that left a conspicuous foot print externally and internally, they were presumably the people perceived as the ones who had lasting impression to the Goguryeo people of the time, and it is considered to have more feasibility in the point that the Hwi-type name of king would be the linking point of the method to grant the name of king of the earlier times. Namely, the intrinsic name of king for those 3 great kings are understand as Gung-wang, Suseong-wang

and Baekgo-wang.

Next, as for the time of shifting them to the 3 great kings, unlike the attention paid to the original poetry to compile 『Sinjip』, it has taken a look at the lighting on 3 great kings in the purpose to find the justification of the regime after the political upheaval of Yeongae Somun. The relationship and foot print of those 3 great kings could be attributable to the point that it was extremely similar to Daeyang-wang who was the father of Bojang-wang, along with the earlier kings in Youngyang-wang, Youngryu-wang (Muyang-wang). Yeongae Somun and Bojang-wang for names of king of 3 yang-wangs for the previous great kings and their brethren to take those 3 great kings as the precedent, and as the foot step of those 3 great kings was concluded by the new great king and inauguration of national funeral of myeonglimdapbu, the foot step of 3 yang-wangs are known to build up the justification for the inauguration of Bojang-wang and Yeongae Somun taking the position of Makriji (prime minister in the contemporary time).

Keywords : Goguryeo, name of king, Yeongae Somun, Bojang-wang